

장애우 배려 없는 엘리베이터 공간

거울 없으면 사람 확인도 어려워 사고 위험

휠체어를 타는 인문대학의 한 학생은 학내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문 사이에 끼이는 불편을 당했다. 휠체어를 타면 엘리베이터 문을 등지는 방향으로 탑승해야하기 때문에 나갈 때 몸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내부 공간이 좁아서 방향을 돌릴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후진해서 나가는데 문이 닫혀버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 맞은편에 거울이라도 붙여 있었다면 이런 불편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학내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자주 겪는 상황이다. 일부 엘리베이터의 문 맞은편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단과대학 내 엘리베이터들은 대부분 거울이 설치돼 있지만 학생회관과 아라미즈홀 등에는 문 맞은편에 거울이 없다.

이승훈(행정 4)씨는 "특히 전동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버튼을 조작하며 뒤를 보기가 쉽지 않다"며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으면 뒤에서 사람이 오는지 확인

할 수 없어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윤미(국어국문 3)씨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 방향을 돌리다가 문이 닫혀서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다고 호소했다. 강씨는 "도우미 한분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대부분 공간이 꽉 차서 방향을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까지 휠체어 방향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설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과 관계자는 "학내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은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증명서를 받을 수 없고 승강기도 운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적 기준은 엘리베이터 주요 바닥 면적이 1.4m x 1.4m 미만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 맞은편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이 기준 이상일 경우 휠체어를 돌릴 수



거울이 없는 아라미즈홀 엘리베이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문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회전하기가 쉽지 않다.

있어서 거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전동휠체어를 타고 학생회관과 아라미즈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본 결과 공간이 기준 이상이라든가 회전이 쉽지 않았다.

강윤미씨는 "실제로 사용하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자칫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꼭 거울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중앙도서관 계단 노후화로 불편 가중

86년 개설 후 한번도 보수 안돼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써도 신발과 바지가 젖어버리는 바람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맛이 안나요." 지난달 29일 한 학생이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바지와 신발이 흠뻑 젖어버렸다. 비가 오는날 학생들은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매번 겪는다. 이는 바로 계단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과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상대 쪽에서 도서관으로 오르는 계단은 매우 노후화 돼 있다. 계단 지면 곳곳이 훼손돼 있을 때, 얼마 내리지 않은 비에도 물웅덩이가 만들어 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86년도 계단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보수공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더욱 심해진다. 특히 폭우로 중앙도서관 앞 도로에 범람하는 빗물이 많아질 경우 물웅덩이가 더욱 깊고 넓어지는 것은 물론, 배수도 잘 되지 않는다. 현재 총 87개의 계단 전체에 배수구는 단 1개뿐이다. 이 배수구도 작년 11월에야 설치됐는데 그것만으로는 흘러내리는 많은 빗물들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마철 시기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물들이 계단으로 흘러내리는 일이 빈번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지연(전자공학과 1)씨는 "이제

장마철인데 방학에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계단을 이용하면서 옷이 젖는 등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을 위해 하루빨리 더 많은 배수시설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과 관계자는 "중앙도서관을 오르는 계단이 많이 낡고 배수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보수 문제 및 예산문제로 인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7개의 배수구 시설을 더 설치하고 내년에는 계단 지면을 재정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수습기자



더위마저 잊은 공부 열기

지난 5일 최고기온이 30.8도를 기록했지만 중앙도서관에는 공부하는 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강보배 기자

김태환, 전 지사·변정일 JDC이사장 석좌교수 임용

2학기 국내대학 교류수학 모집

2년간 법학전문대학원서 강의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동창회장)와 변정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2년 임기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1일 임용됐다.

김태환 전 지사는 지난 64년 제주시 행정서기보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40대 초반에 관선 남제주군수를 지낸 뒤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관

선 제주시장으로 승진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2~3기 제주시장에 출마해 연거푸 당선된 뒤 34대, 35대 제주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지난달 말 공직생활 46년을 마감했다.

변정일 JDC이사장은 19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에



김태환 전 지사 변정일 JDC이사장

입문해 제10대, 제14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5월 5일부터 JDC 이사장을 맡고 있다.

2학기 국내대학원 교류수학을 모집한다. 자격은 1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성적평균이 2.4이상이어야 한다.

교류수학을 원하는 학생은 타대학수학신청서와 성적증명서를 준비해 소속학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신청은 OCU 과목을 포함해 18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문의= 학사관리과: 754-2014

제주지역 상반기 임시설명회 개최

2011학년도 상반기 임시설명회가 제주지역 교고를 대상으로 지난 6일 삼성여고부터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된다.

도내 교고를 대상으로 열린 임시설명회는 제주여상고 신성여고의 경우 제주대 방문방식으로 이뤄지며, 나머지 학교들은 교고를 방문

해 진행한다. 임시설명회는 9일 제주여상고 신성여고, 12일 중앙고, 13일 애월고, 14일 함덕고와 대정고, 20일 중앙여고 순으로 실시된다.

한편 이번 임시설명회에는 8개 교고 1722명의 학생과 68명의 교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웹디자인·건축CAD·컴퓨터설계·광고편집·OA

■ 네오C&C는 취업이 잘 됩니다!

관련업체의 인력채용조건과 학원수료생과의 눈높이에 맞춘 매치-업(MATCH-UP)으로 학원 취업 연계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 네오C&C는 자격증에 강합니다!

취업, 창업, 또는 진학에 필요한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하도록 권유, 지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그래픽스응용기능사/웹디자인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CAD)/일러스트산업기사)

■ 네오C&C는 제대로 가르칩니다!

시간과 교육과정이 획일화된 고질적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자격증으로 무장된 전문가들로부터 실용적 교육을 합니다.

■ 국비지원취업교육 (100%지원, 본인부담 없음)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컴퓨터설계 (CAD&MAX)	2010.8.25~2011.2.24(6개월)	Auto CAD 2D&3D 3Ds MAX/렌더링
광고출판과 편집디자인	2010.8.27~2011.2.28(6개월)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쿼크&인디자인 편집
관광홍보 영상물제작	2010.9.10~2011.3.9(6개월)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프리미어/애프터이펙트

■ 직장인 국비교육 [수강지원금, 사업지원금, 능력개발카드과정]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매월 80%이상 출석시 수강료의 전액 또는 80%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

NEO CREATION & COMMUNICATION ACADEMY
네오C&C디자인학원 문의 (726-0076) 광양보성시장 맞은편 정류장 협진빌딩 2F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 ENGLISH : 기초문법/회화/토익스피킹

■ 日本語 : 기초문법/회화/프리티킹/JPT대비

■ 국비지원교육과정

관광비즈니스 일본어 영어의료관광코디네이터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 전과정 100% 국비지원(본인 부담 없음)

■ 월 수강료 80%~50%까지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중인 자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체 근로자)

■ 근로자 1인 수강료 연간 100만원

■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한금)가능

■ 단, 매월 출석률 80%이상 조건임

제일외국어통역학원
광양로터리 보성시장 맞은편

T.758-5440~1

몸살 앓는 학내게시판 대안은 없나?

불법 전단지 · 관리부족으로 제기능 못해 외면

학내 게시판이 불법 전단지와 관리 부족 문제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내 게시판을 대학본부의 알린 사형이나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게시판을 상업적 목적의 전단지들과 기간이 지난 게시물이 마구잡이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단지들이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상업적 목적의 학원 게시물이 눈에 많이 띈다. 또 기간이 지난 모집안내 게시물들도 많다. 이런 문제는 일부 단과대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공과대와 일부대학에서는 기간이 지나거나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찢어진 게시물, 바닥에 떨어져 쓰레기가 돼버린 전단지들도 있었다. 게시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게시판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떨어진다.

송유미(생활환경복지학부 1)씨는 "게시판에 많은 전단지가 붙어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 해도 정리가 안 돼 있었다"며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점점 관심을 갖

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학생회관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학생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게시물이 더욱 많은 상황이다.

학생회관에는 전단지들을 연결한 거대 게시물이 건물외벽에 붙여져 있으며, 계단에도 전단지들이 마구잡이로 붙어 있다. 이러한 전단지들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귀엽(생명공학부1)씨는 "학생회관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것은 알지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한 상업적인 전단지들은 교육기관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업적 전단지나 낱파가 지난 전단지들은 하루빨리 수거를 해서 진짜 필요한 전단지 내용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리연합회 김지철 부회장은 "각 기관에서 학생회관에 홍보전단지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다"며 "학생회관 게시판에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은 게시물은 철거하고 학교관련 행사 전단지는 붙여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감사준비를 하고



매년 반복되는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있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전단지들을 수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 대학에서는 게시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충북대는 포스터만 따로 관리하는 근로학생을 선정하여 매일 15만원을 주고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

며, 경상대는 일반화원이나 영업 목적을 가지고 붙이는 전단지는 처음부터 허가를 하지 않고 학내행사, 축하 메시지, 공지사항만 허가해 준다. 또 매일 게시판을 돌며 허가가 없거나 기간이 지난 전단지는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지 수습기자

목마른 인문대 2호관

강의전용건물이라 정수기 없어… “3층에 1대 설치”

인문대 2호관 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강의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임에도 정수기가 단 하나도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준공된 인문대학 2호관은 학생들의 강의실과 교수님들의 연구실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총 4층에 이르는 25개의 강의실과 57개의 교수연구실 주변, 강당과 로비조차 정수기는 배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조규민(사회 1) 학생은 "다른 건물에는 정수기들이 설치돼 있어 물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인문대학 2호관에서는 정수기가 없어 3층 매점에서 물을 사먹을 수 밖에 없다"며 "돈을 내고 물을 사먹거나 집에서 물병을 가

져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문대 행정실 측은 "본래 강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수기의 배수를 위한 배수호스를 만들 계획이 없었다"며 "신축건물인 인문대 2호관에 배수구를 뚫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과대학 4호관도 강의실로만 이용되고 있으나 정수기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태일(건축학부) 교수는 "신축건물이라서 미관상의 문제로 배수호스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배수통을 따로 마련한다면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며 "관리가 잘 되어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면 신축건물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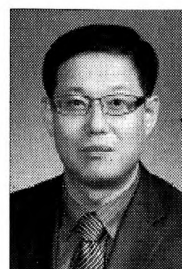
정수기를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문대 행정실 관계자는 "인문대 1호관 재배치 공사가 끝나는 2학기부터 현재 3층 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를 학생 휴게실로 만들어 정수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문대는 지난 1학기 동안 인문대 1호관의 지리 재배치 공사로 인해 2호관 몇몇의 강의실을 학과 사무실과 과방, 매점 등으로 지정했다. 자리재배치가 완료되는 2학기부터 인문대학 1호관은 과사무실, 과방, 매점 등 학생들의 편의시설로, 인문대학 2호관은 본기능인 교수연구실과 학생들의 강의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현 수습기자

전유진 교수, 국토해양기술대전서 장관상



전유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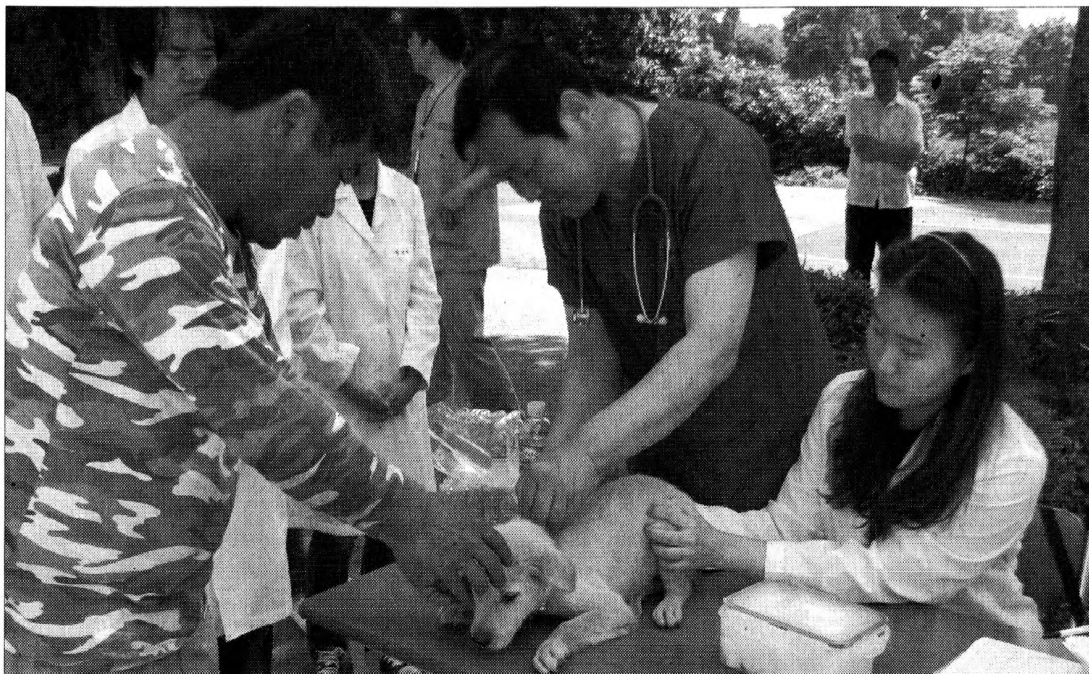
전유진(해양생명과학부) 교수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열린 2010 국토해양기술대전(해양연구개발분야)에서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 교수는 국토해양부 시행 미션바이오 21 사업의 연구과제로 '제주산 해조류 감태로부터 천연유기자외선 차단제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연구과제에서 자외선차단효과가 탁월한 해양천연소재를 제주산 해양생명자원인 감태로부터 개발한 연구개발 실적이 인정돼 이번 국토

해양기술대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전 교수는 지금까지 해양생명과학 분야에서 국제저명학술지 90여편을 포함한 국내외 16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그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원인 농수산분야 준회원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수산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프지 않게 해줄게”

수의과대학(학장 배종희)이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표선면 성읍리, 애월읍 삼리목장, 우도에서 하계동물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주대 뉴스 클리핑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과정 장학금 기부

행정대학원(원장 고영철) 고급관리자과정 총동문회(회장 고영두)가 매년 200만원을 법정대학 재학생 장학금으로 후원한다.

이 장학금은 지난 1992년부터 고급관리자과정 각 기별동

문화에서 낸 발전기금의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에서 지금까지 행정대학원에 낸 발전기금은 총 3억6720만원에 달한다.

제주광어 한라산소주와 홍보마케팅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주대 제주광어브랜드(단장 이영돈) 육성사업단은 지난달 16일 오후 (주)한라산 소주(회장 현승탁)와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김병진)과 함께 제주광어와 한라산 소주의 공동 홍보 마케팅 진행에 대한 3자간 양해각서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로써 제주광어브랜드와 (주)한라산 소주가 제주지역의 경

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주)한라산 소주와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광어브랜드육성사업단은 이를 위해 한라산 소주와 제주광어 홍보물을 제작, 소매점 등에 배포했다.

이들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도 제주지역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산학협력 체결

제주대와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최동규)가 지난달 10일 총장실에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사회가 요구하는 현장 감각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산학협력협약 체결을 통해 인력개발, 산업인력개발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기업개발과 관련한

사항 △교육훈련 및 컨설팅 사업의 상호협력 △국제IT자격(ICDL)의 보급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관계자는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IT자격증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I 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제주대와 한국폴리텍I 대학 제주캠퍼스가 지난달 16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두 대학교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맺었다.

협정을 통해 제주대와 한국폴리텍I 대학 제주캠퍼스는 △교

육, 연구, 강의, 기타 학술활동 등을 통한 교류와 협력 △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간 교류와 상호 학점 인정 △공동연구와 학술회의 개최 △졸업(예정)자의 취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술자료, 출판물, 정보 교환 △각종 기자재, 교육시설의 상호활용 등을 협력하게 된다.

변종철 교수 IBC 세계저명인사 선정



변종철 교수

변종철(화학) 교수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로부터 '2010년 저명인사'로 선정됐다.

변종철 교수는 새로운 '거대고리' 착물 20여종을 합성한 결정구조들을 연구해 국제저명학술지 SCI급에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 과학전문서적 10권을 저술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제주일보에 과학 칼럼을 게재하며 갈릴레오 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 교수는 “과학이 우리 일상생

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데도 학생들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과학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과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 그동안 합성했던 것들을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일반인들에게 삶 자체가 과학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교수는 수년간 다수의 SCI급 논문 심사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IBC로부터 2007 International Educator(2007년 국제적 교육자) 및 “Top 100 Educators 2007”로 선정됐다.

이수진 수습기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상호협력협약

제주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운이)이 지난달 11일 총장실에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생과 도민들이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과학을 문화로써 즐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체결을 통해 제주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인재

더 활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과학기술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공동 기획과 수행 △두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등을 진행한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함께 과학 문화·홍보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대·서귀포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생명자원과학대학(학장 강동일)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증석)가 지난달 24일 서귀포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농업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시험연구와 현장 교육업무 공동 추진

을 통해 이뤄졌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생명자원과학대학 시험연구기기, 포장 등 공동사용 협력 △세계농업의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필요한 정보제공 △생명대 학생의 농업 현장실습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외국어교육원 모의토익 12일까지 모집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식)이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모의토익을 실시한다.

정기토익과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모의토익은 오는 12일까지 30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접수처는 외국어교육원 3층 행

정실이며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응시료는 5000원이며, 시험실적은 1주일 후 www.edukic.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교육원(754-2291-22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판부,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지역과 사회과교육」 선정

제주대학교 출판부가 발간한 신간 「지역과 사회과교육」이 2010년 2월 문화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됐다.

김은석, 정광중, 류현중 사회교육전공 교수가 공동저자인 「지역과 사회과교육」의 내용은 「문화와 장소」, 「여성/향토사」, 「지역연구와 현장학습」, 「재현과 수업이야기」로 네 개의 대주제로 나뉘며, 이를 통해 지역역사와 문화, 지역주민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같은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주제를 제시한다.

한편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판된 총 3,027종을 대상으로 87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총류 10종, 철학 19종, 종교 11종, 사회과학 132종, 순수과학 12종, 기술과학 85종, 예술 20종, 언어 22종, 문학 45종, 역사 30종 등 총 10개 분야 386종이 선정됐다.

선정된 도서는 1천만원 규모로 구입하여 공공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학생해외인턴십 발대식 열려

호주서 10주간 어학연수 · 24주간 인턴십

‘2010년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인턴십’ 발대식이 지난달 23일 대학원동 2층 취업전용강의실에서 열렸다.

해외인턴십 참가 학생들은 도내

대학생 중 영어 구사능력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종 25명(제주대 20명, 관광대 4명, 산업대 1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학생들은 4주 동안 하루

6시간씩 집중적인 어학연수 및 소양교육을 받았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달 25일 출국해 호주에서 10주간의 어학연수를 마친 뒤 현지 업체에서 24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거친 뒤 2011년 2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해외인턴십은 취업전략본부(본부장 박경민 교수)가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억4500만원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

중앙선 없는 위험천만 커브길

인문대 옆 도로 사고위험 높아... 악천후엔 시야확보도 어려워

아라뮤즈홀을 지나 인문대 1·2호관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커브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도로는 인문대, 예술학부, 학생생활관, 중앙도서관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현재 커브길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 지면은 급이 가 있으며 중앙선의 색도 바래져 차도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내리막 차로에 위치한 도로의 미끄럼 방지 시설도 유명무실해 운전자들의 감속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미끄럼 방지 턱은 눈·비 등으로 노면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차량의 내리막길 운행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금의 미끄럼 방지 턱은 잦은 통행으로 인해 노후돼 차로에 색깔구분만 해 놓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문제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시야를 가리게 되는 날씨인 경우에 명확해진다.

고경환(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커브길을 통행하는 운전자 각자가 조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중앙선 구분이 잘 돼 있지 않아 비·눈이 내리거나 안개가 끼는 날씨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야간 운행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앙선에 야광시설을 부착하는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 눈에 더 잘 띄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근의 도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커브길을 지나면 인문대 1·2호관 부근의 차로에만 반사경이 설치돼 있어 정차 커브길에서는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 간에 시야확보가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리막길 차량의 운행에 대비한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지문(일어일문학과 3)씨는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올라가는 차량에 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라이트의 밝기가 낮을 경우 반대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들다”며 “사람들이 만약 길을 건너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인문대 옆 커브길은 중앙선이 거의 지워져 있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날이면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대해 시설과 관계자는 “본관·중앙도서관·학생생활관 주변 도로 공사를 7월부터 들어가 8월 15까지 끝낼 계획이다”며 “반사경 설치하는 겨울철 제설차량이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고, 과속하는 학생을 또한 방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정승우 수습기자

자연대, 1호관에 취업정보실 열어

2학기부터 취업 위한 각종 도서도 비치 예정

자연과학대학(학장 김두철)이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날 24일 자연과학대학 1호관 1층 로비에 취업정보실을 개설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는 취업정보실은 10개의 컴퓨터를 배치해 학생들이 취업정보 및 학습을 하도록 지원한다. 또 취업정보실은 토론장소와 정보 공유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문지영(수학 1)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중앙도서관까지 갔어야 했는데 이전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찾고 과제를 할 수 있게 돼서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자연대 행정실 관계자는 “학생들이 취업정보실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토론, 정보공유 등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연대 1호관 로비에 위치한 취업정보실 내부모습

또 2학기부터는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도서 및 취업정보지 등도 비치할 계획이다.

박현 수습기자

전도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

16일 국어국문학과 주최

제9회 전도고등학생 논술경시대회가 국어국문학과(학과장 김동윤)와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주최로 오는 16일 열린다.

이번 대회는 개인의 삶이나 사회 속에 숨겨진 제반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그것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도내 고등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열린다.

논술주제는 당일 발표하며 심사위원회는 국어국문학과 교수들로 구성된다.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오는 15일까지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kugmun@jejuu.ac.kr)으로 참가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어국문학과(754-2710, 010-8663-948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세필 교수팀, 체세포로 제주흑우 복제

노은지 연구원, 한국동식물번식학회 우수논문상

제주대학교와 (주)미래생명공학연구소 공동연구팀(연구책임자 박세필 교수)이 노령으로 죽은 제주흑우의 체세포를 이용해 흑우 복원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2년 전 노령으로 도축된 제주흑우 씨수소의 귀에서 떼어낸 냉동보관 체세포를 이용해 체세포 핵이식방법으로 복제수정란을 만들었다. 그후 대리모 소의 자궁에 이식된 수정란은 지난해 9월 복제 흑우 ‘흑을돌이’로 태어났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제주흑우 ‘흑을돌이’는 1등급 이상의 송아지 출생비율이 95%에 이르는 최우량 정자생산 씨수소이다. 이 씨수소와 복제된 ‘흑을돌이’의 친자감별 유전자 분석 결과 씨수소 체세포와 복제소 ‘흑을돌이’ 귀세포의 유전자가 모두 일치하여 완전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까진 제주도에서 소 도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의 난자와 난소를 얻을 수 없어 서울부설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야 했다. 박세필 교수는 “복제수정란을 다시 제주도로 보내고 하는 과정이 있어 힘들었지만 복원의 성공으로 제주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제주도와 제주대학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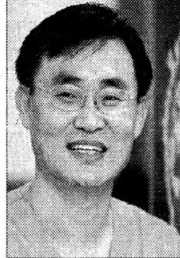
현재까지 제주도에 최우량 정자를 생산해내는 제주흑우 씨수소가 70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로 앞으로 최우량 정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박세필 교수와 연구팀은 씨암소 복원의 연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흑우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의학품 소재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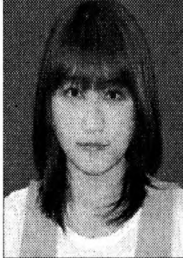
한편 줄기세포연구센터 노은지 연구원(석사학위과정 대학원생)은 지난 18일부터 2일간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동물번식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노 연구원은 ‘체외생산된 소 수정란을 이용한 효율적인 배아 줄기세포 확립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그 동안 수많은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도 불구하고 확립하기 어려웠던



박세필 교수



노은지 연구원

대가축인 소 배아줄기세포의 효율적인 확립방법을 규명한 것이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예전부터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로 많은 논란거리가 됐다. 그러나 이번 소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를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은지 연구원은 “실현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연구논문을 쫓겨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와 연구논문은 박세필교수님과 김은영소장님, 많은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우수 논문상 수상은 연구소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함께 수상한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현 수습기자



○...중고장터로 변신한 자유게시판

요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중고장터로 변신해 보는 이들이 늘었다.

원래 있던 「팝니다/삽니다」게시판이 상업성 매매 등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온다는 이유로 삭제돼 기존 이용자들이 「팝니다/삽니다」게시판을 부활해 달라고 아우성.

무작정 게시판을 없애기 보다는 「팝니다/삽니다」 게시판을 애용하던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중고장터 게시판 대책을

○...위험계단을 차단으로

인문대학 2호관 계단 높낮이가 달라 학생들이 넘어질 우려가 있어 설치한 위험표시 게시판이 미관상 보기 안좋아 논란.

인문대학 2호관 계단의 높낮이를 다르게 설계한 이유는 설계 당시 예술학부도 인문대학에 속해서 예술학부의 특수한 야외공연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계단은 끝났지만 된 상황.

이에 따라 인문대학 2호관은 계단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미관에 더 신경쓸 예정.

○...강의평가는 일자 긁기?

22일까지 강의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자 긁기식 강의평가로 인해 강의평가의 의미가 무색.

이는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성실히 하기 위한 의례적인 형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러한 원인은 강의평가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된다거나 결과가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

교수의 질함과 못함이 아닌 강의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진정한 강의평가가 이뤄지고 공개되길 기대.

감귤 바이오에너지사업 선정

전남대·하이테크진흥원과 공동 연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지원하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분야에 제주대 ‘감귤바이오에너지’ 사업이 지난날 28일 선정됐다.

우리 대학이 주관으로 나서는 ‘감귤바이오에너지’ 사업은 전남대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공동 연구에 참여한다.

2년간 총 6억원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감귤가공의 결과물 배출되는 6만여 톤의 감귤박(감귤껍질)과 비상품감귤에서 에탄올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감귤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감귤바이오에탄올 생산실증 연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총괄책임자인 생명공학부 김재훈(아열대·열대생물자원은행 센터장) 교수는 “바이오 에탄올은 자동차, 농기구, 하우스, 가축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바이오에탄올 이용은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제주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감귤 바이오에탄올은 과잉생산된 감귤들을 자원화해 이용하

기 때문에 감귤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경제성분석을 의뢰해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감귤바이오에탄올 생산 전 과정에 대해 기초연구는 이미 진행되어 있어서 현재는 매우 적은 양이지만 앞으로 1~2년 후면 대용량화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대용량화 연구는 이에 따른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로는 사업화를 대비한 대용량화 연구에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자치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바이오에탄올은 석유·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와 달리 환경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식물로부터 연료를 얻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하다.

또한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21C 녹색바람과 맞물려 일찍부터 차량용 대체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다.

정승우 수습기자

제주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 공고2010-1

2010년도 예비군훈련 공고

2010년도 예비군훈련(향방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0. 05. 제주대학교총장

1. 훈련기간 : 2010. 7. 1~14(토,일요일 제외)
2. 장 소 : 해병대1대대 예비군훈련장(대정읍 모슬포)
3. 훈련대상 : 전역·6년차 병장자 전원(예규군부 없음)
4. 교육훈련 일자 및 학급편성

일자	훈련 대상 대학(원)		인원	대상
	대학	학과(부)		
2010.07.01(목)	해양과학대학	전 학과	328	346
	법학전문대학원	전 학과	18	
2010.07.02(금)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264	297
	수의과대학	전 학과	27	
	의과대학	전 학과	6	
2010.07.05(월)	공과대학(A)	건축(공)학, 기계, 메카트로닉스, 멀티미디어, 문화조형, 생명화학공학, 식품생명, 통신공학	306	306
2010.07.06(화)	공과대학(B)	에너지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309	309
	인문대학	전 학과	246	
2010.07.07(수)	예술학부	전 학부	34	303
	교육대학	전 학과	23	
2010.07.08(목)	법정대학	전 학과	292	292
2010.07.09(금)	경상대학(A)	경영정보, 경영, 관광경영, 관광개발	276	276
2010.07.12(월)	경상대학(B)	경제, 무역, 경영(야), 관광경영(야), 회계, 회계(야)	281	281
	대학원	일반, 교육, 행정, 경영, 의학, 통역, 산업, 사회교육	202	
2010.07.13(화)	교직원	교직원(교수)	12	214
	사범대학	전 학과	178	
2010.07.14(수)	생명자원과학대학	전 학과	163	341
계			2,965명	

※ 교육훈련대상자 명부 참조(학과별 발송)

5. 유의사항

가. 훈련은 소속대학 및 학부(과)별 해당일자에 참석 할 것.

(불참자는 보충교육 참석)

나. 당일 09:00까지 시간연수 개별입소 할 것.

※ 지각자 처리 기준 : 30분 이내 1시간 추가, 30분 이후 입소불가

다. 중식 제공(도시락 지참자는 중식비 지급(5,000원) 및 교통비 지급(4,000원)

※ 학과단위 단체 도시락 반입 할 수 없음(허가 불가 함)

라. 예비군복 착용(규정된 복장 착용)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지참.

바. 정당한 사유(심심)로 인하여 훈련연기 및 일자 변경을 원하는 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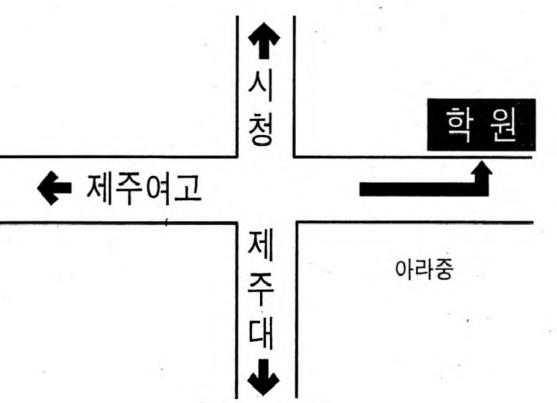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2010. 6. 11까지 연기 및 변경원인을 제출할 것.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 구내754-2288 ~ 9로 문의 바랍니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백만 제주인 네트워크 산실 - 문화교류관 착공

재일제주인과의 다각적 협력 위한 교류의 장 기대

전시시설 강화한 박물관과 김창인 회장 '인생철학' 계승공간 마련



201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문화교류관 조감도 사진

문화교류관이 지난달 15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과연 문화교류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과 마주할까. 문화교류관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재일본제주인과의 교류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재일본제주인센터와 박물관이 들어설 문화교류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4796㎡(1453평) 규모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층에는 김창인관, 제주인실, 테마전시실, 자료실, 영상실, 역사관실, 2층에는 상설 및 기획전시실, 시청각실, 3층에는 수장고, 도서자료실, 학예실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교류관 이렇게 만들어졌다

문화교류관이 건립되는 이유는 재일본 제주인센터 설립과 박물관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재일본제주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제7대 고충석 전 총장은 2005년 취임과 함께 재일본제주인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그의 공약에 따라 경영사업단이 센터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기부금의 시작은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던 김병중 박사와 도쿄에 거주하고 있던 오찬의 회장 등의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던 김창인

남해회관 회장이 재일본제주인센터의 설립 취지가 자신의 뜻과 부합한다며 선뜻 35억원을 쾌척했다. 이는 기존에 재일본 제주인센터 건립에 필요한 전액이었다.

그러나 고 전 총장은 기존의 박물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박물관을 새롭게 세우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 전 총장은 재일본제주인센터와 박물관을 하나로 묶은 문화교류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일본 제주인센터와 박물관은 제주인의 문화사와 관련해 유물전시관, 교육, 연구 활동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창진 총장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화교류관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허 총장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결단을 내렸다. 마침내 재일본제주인센터와 박물관을 통합한 '문화교류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소통과 화합의 가교, '재일본제주인센터'

제주의 발전 뒤에는 언제나 재일본제주인들이 있었다. 대학나무라 불렸던 감귤요즘을 전달해 주었던 것도 그들이었으며 제주의 발전 사업이라던 두 발 벗

고 나섰다. 그런 재일본제주인들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재일본제주인센터가 만들어진다.

이에 재일본제주인센터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생각으로 다양한 수업과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첫째로 미국·중국·일본 등의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학교'이다. 학교는 1년에 다섯 정도의 기간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의 언어·역사·문화와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고, 제주의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 제주인의 자부심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돌아갈 즈음에는 가슴 속에 제주인의 자긍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우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의 신설이다. 이창익·허남춘·김동진 교수가 팀 티칭 방식으로 가르치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은 재일제주인에 관한 제주의 언어·역사·문화 부분과 더불어 김창인 회장의 삶과 철학을 가르친다. 또한 강의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학생은 선발을 통해 일본연수를 가게 될 예정이다.

셋째로 양질의 다양한 '전시 콘텐츠'의 제작이다. 예를 들어 재일제주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오사카의 이쿠노구와 하가시나리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넷째로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설이다. 과거에는 설명을 듣거나 보는 등의 수동적인 관광이었다면, 요즘은 직접 체험을 하며 느끼는 능동적인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센터에서도 당시 사람들처럼 밥도 지어보고 옷을 입어보고 곡괭이질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창익(일어일문화과) 교수는 "우리들은 현재의 삶에 안주한 채 그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의 뿌리를 찾아주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며 "대학만의 예산으로 건립과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도민들도 물품, 사진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시·공간을 뛰어 넘어

기존의 박물관은 본관 3층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관심을 제대로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전시공간 부족과 유물 보관에 있어 많은 어려움도 따랐다.

그러나 문화교류관으로 이전을 계획하며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함과 동시에 제주도의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

박물관은 이번 이전을 통해 3만점에 달하는 유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상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박물관'을 신설한다.

'야외박물관'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법정대 앞에 있는 야외박물관을 음향발까지 확대해 다양한 전시물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박물관은 삼발굴을 통한 유물 확보, △학생, 교직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응기 제작·답사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 개설 △대학·박물관·제주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전문가 파견 양성 등을 운영한다.

김동진(사학과 교수) 박물관장은 "이번 박물관 이전을 통해 기존의 박물관이 못해왔던 부분들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이버 박물관과 야외박물관을 중심으로 도민과 학생, 관광객들에게까지 언제나 열려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김창인관'

김창인 회장이 사회에 환원한 35억원이라는 기부금은 전국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기업가의 사회 환원은 당연하고도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임을 그는 몸소 실천한 것이었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 고충석 전 총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재일본제주인들의 삶과 철학을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며 선뜻 거액을 건네 주었다.

이 금액은 문화교류관 내에 '김창인관'을 조성하는데 쓰일 계획이다. 이창익 교수는 "김창인 회장은 '心'이라는 인생철학에서 원리원칙을 지킬 것과 거짓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며 "이런 정신들을 학생들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수습기자

이색 계절수업 인기

“우린 바다와 골프장에서 수업해요”

학점 따고 운동 배우고 일석이조



지난달 28일 골프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이 스윙연습을 하고 있다.

이번 하기 계절수업은 총 4833명의 학생들이 등록 해 계절학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색강좌들이 있다. 바로 골프Ⅰ, 요트Ⅰ이다.

무더위가 내리찍는 여름방학에도 대학에는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눈에 띄는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스포츠 강좌다. 제주의 특성을 살린 골프와 요트 강좌의 현장을 찾았다.

제주의 푸른 잔디와 골프

지난 28일 찾아가 골프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조금은 어렵다는 듯이 어색한 기본스윙을 연습하고 있었다. 학생들 간에 실력차이가 있던 했지만 대부분 멋진 스윙을 선보였다.

강의를 담당하는 오민원(체육학부) 교수는 학생들의 자세 하나하나를 주의깊게 살펴 보면서 잘못된 점을 속속들이 짚어냈다. 이 강의에서는 골프에 대한 역사와 기본적인 스윙들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멋진 장타 스윙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윙들도 알려준다.

이동환(원예학과 4)씨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골프를 이번 기회에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며 "교수님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강의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착실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의"라고 말했다.

오민원 교수는 "제주도가 골프

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강좌는 학생들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골프를 대중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맑은 바다 그리고 요트

요트 강좌에서 햇빛이 쨍쨍 비추는 바다는 학생들의 휴식처이자 강의실이다. 이 수업에서는 요트의 구조와 전문용어 그리고 요트를 타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들을 배울 수 있다. 지난 30일 찾아가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 인근 해변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의 지도에 따라 요트의 기본 스킬을 배우고 있었다.

학점교류로 수강을 받고 있는 박산희(부산대 문헌정보학과 4)씨는 "전문용어들을 이해하고 중심을 잡는 것이 힘들지만 타 대학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실습 중심의 독특한 수업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또 현원배(환경공학과 4)씨는 "요트를 쉽게 접할 수 없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바다 위의 모험을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강의를 담당하는 양평환(체육학부) 교수는 "요트 수업은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강의"라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도 하지만 강의를 통해 바다와 친숙해지며 스트레소도 풀고 학점도 얻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동규 수습기자

학생생활관 자치위원회 설립

학생자치, 생활관에도 뿌리 내린다

개인주의 극복과 재정확보가 관건

학생생활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관 자치위원회(회장 고은찬, 해양산업경찰학과 4, 이하 생활관 자치위)가 2학기 정식 출범한다. 새롭게 출범된 동고동락. 생활관 자치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활관 자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생활관 자치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학생생활관 내에서 입주생들에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생각대로 총학생회가 생활관 자치위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자치위 구성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학기에 비공식으로 생활관 자치위 집행부가 구성됐으나 총학생회 간부가 회장직을 임시로 맡는 등 기구 신설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공식 출범이 미뤄졌다.

이에 제주대신문에서는 826호 신문(11월 19일자)을 통해 생활관 운영과 생활관 자치위에 필요성과 실질적인 구성 노력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결국 당시 총학생회는 생활관 자치위를 만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이후 슈퍼스타 총학생회는 생활관 자치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시 한 번 자치위의 구성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학생생활관 측과 협의해 생활관 자치위를 구성하기 위한 임원 모집에 나섰다. 모집결과 16명에 학생들은 선발했고, 준비 도중 휴학하거나 생활관을 나간 학생들을 제외해 현재는 12명의 임원들이 생활관 자치위 출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타 대학 생활관 자치위는 어떻게 운영될까

생활관 자치위는 대학이 사립이나 국립이냐를 비롯해 생활관의 규모, 자치위원회의 위유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생활관 자치위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충북대의 경우는 각 동이나 층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관생회장, 남·녀관생부회장, 부장, 층장, 모녀터링 요원 등으로 임명한다.

이와는 다르게 경상대의 경우는 업무 분야별로 나뉘는 형태로 관생회장,

남·녀관생부회장, 대의원, 편집국, 복지국, 시설관리국, BTL관리국으로 구성된다.

생활관 자치위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생활관생들에게 자치위회비를 걷는 방식과 생활관 자체 예산에서 편성되는 두 가지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생활관 자치위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다양하다. 혜택은 기숙사비나 식비를 면제해주는 방식과 월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월급제 방식으로 나뉜다. 또 일부대학에서는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 지급하기도 한다.

생활관 자치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관생들의 외박신청이나 발령관리, 점호 등과 같은 행정 보조업무들을 맡는다. 그러나 생활관 자치위의 형태가 각 대학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업무 또한 생활관 자치위마다 다르다.

충북대 관생자치회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벅사랑 나눔제(Open House)라는 생활관 축제, 체육대회, 정기회의, 간담회를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또 생활관 홈페이지에 관생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나 건의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험기간 관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관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대의 경우에는 신입 생활관생들이 생활관에 적응하기 쉽도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또 생활관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임 찾아고 고마움을 전하는 어버이날 행사도 연다.

성균관대 기숙사생자치회는 사생들에 문화생활을 위해 지하 열람실에서 매달 1~2회 정도 영화 상영을 진행한다. 매달 기숙사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사생회 활동을 알려주는 통통마당도 발간한다. 또 각 관 식당 앞에서 기숙사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매학기 1~2회 정도 시행한다. 이외에도 일일 락키페를 열어 생활관에 살지 않는 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려대와 안동대에서는 관생들에게 알림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한 방송을 매일 진행하기도 한다.

전남대에서는 생활관생들에게 맞춰진 이색축제가 진행된다. 반디축제라 불리는 이 축제에서는 방을 잘 정리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쁜 방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또 반디 베품시장을 열어 생활관생들끼리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판매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전남대에서 지난해 열린 기숙사 축제 사진.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외국음식 소개를 진행해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진다.

우리학교 생활관 자치위는 어떤 모습일까

2학기 출범하게 될 생활관 자치위는 동고동락이라는 이름으로 고은찬(해양산업경찰학과 4)씨가 회장을, 현수미(정치외교 4)씨가 부회장을 맡는 생활관 자치위 임원들의 투표로 선출됐다. 현재 동고동락 생활관 자치위는 기본 회칙을 구성했으며, 1일부터 생활관 홈페이지에 자치위 공간을 만들어 생활관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조직구성은 업무분야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국, 기획국, 홍보국, 관

리국, 선도부, 복지국, 감사국, 동장으로서 조직개편을 마쳤다. 또한 자치위에 혜택이나 업무,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행정실과 협의 중에 있다.

고은찬 자치위 회장은 "조직구성이나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라며 "이를 위해 잘 운영되고 있는 타 대학의 생활관 자치위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위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고은찬 자치위 회장은 "자치회비를 따로 걷는 것은 생활관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할 사항"이라며 "생활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제주의 복식 문화

'창의와 실용의 미학' 그 자체인 제주의 옷

옷이란 오랜 세월 인류와 함께 해 왔다. 아담과 이브의 나뭇가지로부터 최첨단 나노의 기술이 첨가된 우주복까지, 이러한 옷에는 그 지역의 기후나 풍토와 같은 자연 환경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와 기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생각, 정치적 관념 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 등이 깃들여 있다.

제주의 옷은 크게 한반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 고유의 의생활을 창조하면서 발달해 왔다.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활 옷이 주류를 이루면서 유아복의 하나인 붓튀침옷, 노동복인 갈옷, 잠수들의 옷인 물소중이, 중산간 지역의 목자들의 옷인 우장과 가죽두루마기 등 주로 생업과 관련된 옷들이 보편적이었다.

제주의 의복문화를 집약해 보여주는 옛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글도 있다.

"가죽 띠와 미투리에 철퍼 옷을 입었다."

"가난한 자들이 추운 겨울철에 도롱이나 망석을 입고도 동사를 면하였는데..."

"목면 및 삼과 모시가 생산되지 않아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모자라므로 오직 해산물을 캐어서 생업했으며... 부인은 치마가 없고 다만 삼 새끼로 허리를 동이고 두어자 배로 새끼 앞뒤에 기워서 그 음부를 덮을 뿐..."

김삼헌의 『남사록』(1601)에는 이처럼 철퍼 배옷을 입었다, 도롱이나 망석을 두르고 있다. 목면과 모시가 생산되지 않아서 부인들은 겨우 음부만을 가렸다는 기록을 통하더라도 15세기 제주의 환경은 입을 거리가 그리 풍족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만 하여도 육지와 교역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물품 중의 하나가 옷감인 포부로서, 미, 미, 포부, 염료 중에서도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던 사실 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옷감이 귀하다면 옷이 한 벌 마련되면 그 옷이 낡아 떨어질 때까지 몇 번이고 꿰매어 입다가 상한 곳이 있으면 아기의 기저귀나 걸레로 이용되고 마침내는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썼으므로 그 흔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특성이 있다.

제주도의 기후와 생업조건은 또 다른 의복생활의 패턴을 낳았다. 해안지역은 남방문화를 수용하였는가 하면 중산간 지역은 북방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일반 의복은 노동복과 일상복을 겸하는 기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제주의 복식전'을 열고 해녀복 물소중이와 물질두루마기를 전시하는 등 제주의 복식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주의 속담에는 노동의 일상이 곧 제주의 삶의이었음을 대변해 주는 말이 있다. "개날 뚫날 골갱이 놓는 날 어서 일하다 뚫자 이팔" 개날, 뚫자날 호미 놓는 날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 모양이라는 제주인이 고단한 일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제주사람들의 삶이란 곧 노동과 닮아 있었다.

대표적인 노동복으로는 갈옷, 물소중이, 목자들의 옷이 있다. 갈옷 대부분 무명이 차지하였으나 1940년경 광복이 들어 오면서는 광복을 더 오래 그리고 실용적으로 쓸 목적으로 옷감에 감물을 들여 사용하였다. 감물의 유래에 대하여서는 일찍이 목축을 하던 제주사람들이 돼지피로 염색을 하였으나 그것이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감으로 대체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아마도 제주사람들의 노동 생활에 본바탕의 옷감(하얀색)은 감당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대체의 소산이 염색이었을 것이다.

갈옷의 과학성과 합리성은 다양한 연구로 입증되고 있다.

제주의 해안지방에는 해녀들의 복장은 물소중이다. 1703년(숙종 29)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에 보면 물소중이를 입고 해녀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원피스 수영복의 일종으로 하얀색 수영복에 하얀색 머리 수건을 한 해녀들의 바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소중한 그림책이다. 이 물소중이는 한쪽 면을 완전히 띄워 매듭단추로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단과

마름에서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보이는 제주 여성들의 살림살이의 조낭정신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표적인 의복이다.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 변화가 심하다. 그때마다 다양한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었던 제주 여성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 옷 속에 반영하여 언제라도 크기와 품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옷으로 제주여성의 창의성이 곧 실용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제주의 중산간 지역은 목축을 주로 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가죽 두루마기를 입었다. 두루마기란 골고루 터진 곳이 없이 막혀있다는 뜻이며 수모피(獸毛皮)로 만든 옷으로 북방문화의 요소가 짙고 주로 방한의 목적으로 착용하였다. 이외에도 목자(소떼우리, 말떼우리)들은 우장을 입었다.

제주의 우장은 또한 그 짜임이 독특한 짚·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짜임에 있어 조직이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나 아름다움에서도 단연 일품이다. 여름에는 비옷으로, 겨울에는 방한용 외투로, 산이나 들에서는 밭에 이불로도 사용하여 그 용도가 다양하였다.

이렇게 제주의 일상은 노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또한 통과례의 날들이 있다. 이 날을 위한 의례복으로는 관복, 혼례복, 상례, 제례복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의복문화는 주로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형태는 조선시대 복장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발전되어왔다.

제주의 옷, 복식문화는 한마디로 제주의 생활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제주사람들의 정신이 담겨진 문화유산이다. 여러 가지로 열악했던 삶의 조건은 실용을 위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궁리하게 했고 그것이 하나의 창의성으로 이어져 독특한 의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제주의 갈옷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전반이 고민하는 친환경적 삶을 대변해 주는 하나의 문화, 자연주의로 대변되면서 제주의 패션문화를 대표하는 선두주자가 되었다. 제주 옛 선인들의 지혜가 그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앞으로 전 지구적 가치는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이다. 제주의 옷인 물소중이, 갈옷, 도롱이 등은 이런 정신과 가치를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미래 지향적인 의복문화였던 것이다. 제주의 복식문화가 지녔던 복식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살려 더한층 실용과 창의를 담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제주의 옷, 복식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전시회가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제주의 복식>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다. 어린이들에게서 생활복, 의례복, 모자, 신발류 등 기타 장신구류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로 제주 사람들의 의생활 전반을 담고 있는 전시이다. 꼭 한번 들러 보길 바란다.

장혜련 사학과 강사

한권의 책

풍부한 미술사적 안목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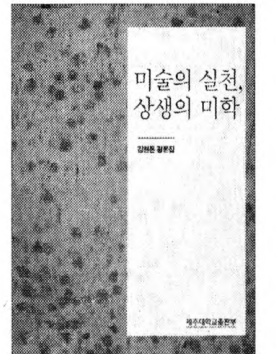
대지(大地)가 피우는 꽃은 아름답고, 미(美)이다. 삶도 꽃을 피우는 데, 그 꽃은 예술이고, 미(美)이다. 대지가 꽃을 키우듯이, 삶은 예술과 미를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토양이고 모태(母胎)이다.

그렇다고 삶이 미는 아니다. 초목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대지로부터 줄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야 꽃을 피울 수 있다. 미의 창조자도 삶에 뿌리를 내리지만, 삶에 매몰되지는 않는다. 초목의 줄기처럼 대지인 삶으로부터 일어설 때에야 예술가는 미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그 꽃은 대지의 꽃이지만 대지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회화도 삶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회화가 바로 삶은 아니다.

예술가들, 화가들도 삶을 산다. 그러나 잘 살 수가 없다. 삶을 잘 산다는 것은 미가 될 수 없다. 잘 산다는 것은 대지와 삶에 머무르는 것과 같다. 그의 삶이 회화가 되고, 미가 되기 위해서는 초목의 줄기처럼 상승해야 한다. 상승한다는 것은 대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지로부터 빛을 향해 위로 상승하고 대지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삶에 도전하고, 마비되고, 드디어는 삶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를 위해서는 삶으로부터 고립되고 삶과 대립되어야 한다. 삶으로부터의 떨어지고 삶에서의 추방은 화가에게 필수적이다. 웰빙이 미가 아니듯이 미는 삶으로부터의 상승이고, 이 상승은 고통과 고립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꽃이 피듯이, 삶으로부터 버려진 곳에서 미의 꽃은 피어난다. 삶은 흐른다. 삶의 공간도 흐르고 삶의 시간도 흐른다. 흐름은 사라진다. 사라진 속에 안주할 때 삶의 꽃은 금방 시든다. 삶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흐름과 사라진 위로 상승해야 한다. 삶의 꽃은 시들지만, 삶의 외딴 곳에 피어난 미의 꽃은 영속한다. 미와 회화는 삶에서 피어나지만 삶을 넘어선 곳에 있다.

삶과 미, 삶과 회화의 이 어려운 관계를 미술평론은 설명을 해야 한다. 꽃을 피워내는 삶과 삶이 아닌 꽃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 미의 높은 산정(山頂)을 오르기도 하고 삶의 들판을 걷기도 해야 한다. 이편에 있는 삶과 저편에 있는 작품 사이에 다리



「미술의 실천, 상생의 미학」

김현돈(철학과) 교수 평론집

도 놓아 주어야 한다. 대지와 꽃, 삶과 예술, 감상자와 작품을 이해의 다리로 이어주어야 하는 과제를 평론가는 안고 있다. 그래서 평론 작업과 예술비평 작업은 험한 골짜기를 뛰어넘는 다리 놓기가 된다.

이번에 제주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김현돈 교수의 미술평론집 「미술의 실천, 상생의 미학」은 그러한 어려운 과제를 겨냥하면서, 삶과 미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하는 진정한 고뇌에서 나온 저서이다. 제1부 「미술과 삶의 회화」, 제2부 「역사와 예술의 만남」, 제3부 「삶, 인간, 예술」의 제목들이 말해 주듯이, 그리고 저자 스스로 「나의 미술 비평의 주된 쟁점과 삶에서의 추방은 화가에게 필수적이다. 웰빙이 미가 아니듯이 미는 삶으로부터의 상승이고, 이 상승은 고통과 고립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꽃이 피듯이, 삶으로부터 버려진 곳에서 미의 꽃은 피어난다. 삶은 흐른다. 삶의 공간도 흐르고 삶의 시간도 흐른다. 흐름은 사라진다. 사라진 속에 안주할 때 삶의 꽃은 금방 시든다. 삶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흐름과 사라진 위로 상승해야 한다. 삶의 꽃은 시들지만, 삶의 외딴 곳에 피어난 미의 꽃은 영속한다. 미와 회화는 삶에서 피어나지만 삶을 넘어선 곳에 있다. 삶과 미, 삶과 회화의 이 어려운 관계를 미술평론은 설명을 해야 한다. 꽃을 피워내는 삶과 삶이 아닌 꽃을 같이 설명해야 한다. 미의 높은 산정(山頂)을 오르기도 하고 삶의 들판을 걷기도 해야 한다. 이편에 있는 삶과 저편에 있는 작품 사이에 다리

대지의 꽃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의 삶에서 자라난 제주의 미술 작품들을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주의 평론가이다. 미술 평론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제주에서 김현돈 교수의 미술평론 작업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바다와 바람, 흙과 눈물의 제주의 삶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일깨우고,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삶 속에서의 새로운 실천과 상생의 이념을 끌어내려는 저자의 이번 저작은 미술평론을 넘어, 미학자로서의 저자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김종태 독일학과 교수

Welcome to English Camp!
생각만 해도 즐거운 영어캠프!

제주대학교 여름방학 초등영어캠프 참가자모집

제주대학교 초등영어캠프는 원어민과의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신감을 키워 영어실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캠프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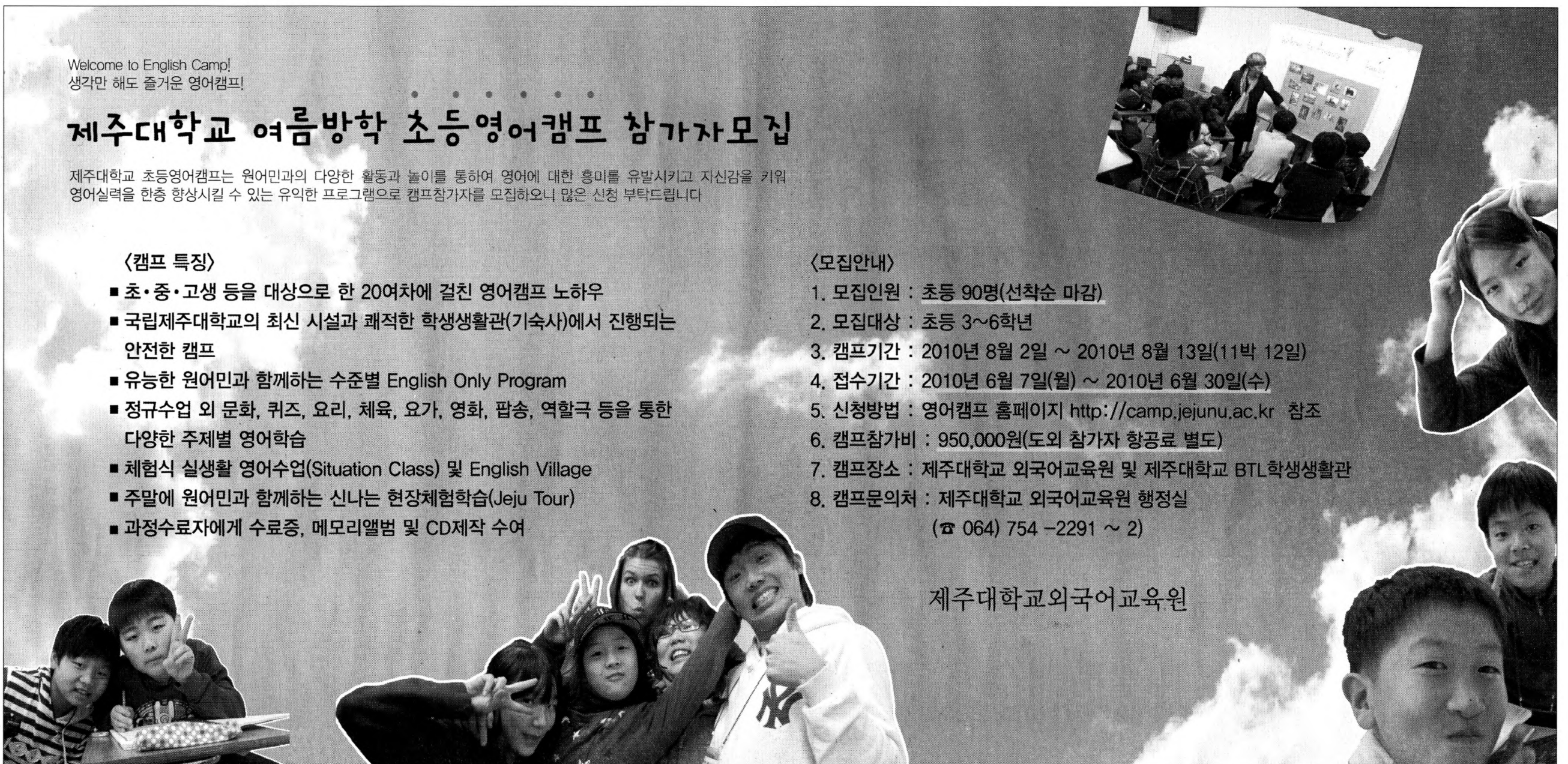
<캠프 특징>

-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한 20여차에 걸친 영어캠프 노하우
- 국립제주대학교의 최신 시설과 쾌적한 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진행되는 안전한 캠프
- 유능한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준별 English Only Program
- 정규수업 외 문화, 퀴즈, 요리, 체육, 요가, 영화, 팝송, 역할극 등을 통한 다양한 주제별 영어학습
- 체험식 실생활 영어수업(Situation Class) 및 English Village
- 주말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신나는 현장체험학습(Jeju Tour)
- 과점수료자에게 수료증, 메모리앨범 및 CD제작 수여

<모집안내>

1. 모집인원 : 초등 90명(선착순 마감)
2. 모집대상 : 초등 3~6학년
3. 캠프기간 : 2010년 8월 2일 ~ 2010년 8월 13일(11박 12일)
4. 접수기간 : 2010년 6월 7일(월) ~ 2010년 6월 30일(수)
5. 신청방법 : 영어캠프 홈페이지 <http://camp.jeju.ac.kr> 참조
6. 캠프참가비 : 950,000원(도와 참가자 항공료 별도)
7. 캠프장소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및 제주대학교 BTL 학생생활관
8. 캠프문의처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 064) 754-2291 ~ 2)

제주대학교외국어교육원



썰막 인터뷰 - 여름방학 계획 이렇게

캠버리 자원봉사가 곧 방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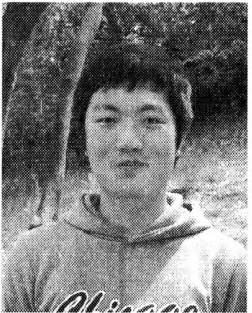


스카우트 활동으로 캠버리에 갈 것이다. 캠버리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야영을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캠프이다.

올해 캠버리에 참가하면 7년째다. 작년부터는 스테프로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방학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장유지 사회학과 1학년

아르바이트 통해 부모님께 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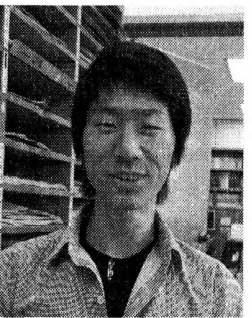


우선 운전면허를 따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비로 서울에 가서 유명한 명소를 돌아보고 맛집도 찾아갈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한정우 토목공학부 1학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철저히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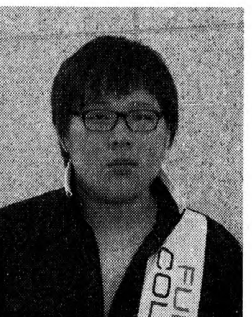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겠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도서관에서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휴학서를 낸 후 호주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갈 것이다. 호주에는 친척들이 살고 있다. 방학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꼭 호주로 가고 싶다.

고덕훈 생명공학부 2학년

입대 전 의미있는 시간 보내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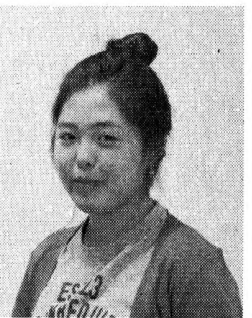


오는 8월에 입대할 예정이다.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활 했는지 되돌아보니 딱히 한 일 없이 시간만 흘러 보낸 것 같아 허무하다.

군대 가기 전에 남은 시간이라도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배세준 사회학과 2학년

전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만끽



이번 여름방학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월드컵'이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데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는 때보다 더욱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동여서 환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지희 정치외교학과 1학년

제주대 취업도우미들을 만나다 - 신정수 취업교과목 강사

“학점 · 토익, 취업 절대기준 아니다... ‘꿈과 목표’ 명확해야”

취업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의 과목인가

“취업과 진로설계를 도와주는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기업 환경분석과 채용동향 이해, 자신의 스펙과 역량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역량, 맥킨지식 3단 프레임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통하는 면접 토크면접, 시나리오별 취업전략 등이다. 이 중에서 시나리오별 취업전략은 개인이 보유한 학점과 토익점수 그 외 역량을 고려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회사와 부서를 결정할 후에 맞춤형으로 회사를 지원하는 전략이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제주도란 특성이 있는 것 같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제주도 내에서 공무원이나 은행 정도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것 같다. 어려운 부분은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것 같고,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학점과 토익점수를 얻는데 급

급해 있는데, 기업에서는 학점과 토익점수는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지 채용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기업에 입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스킬을 획득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스킬은 학교 교과목에서는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전략본부에서 방학이나 학기중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실시할 때 참여해 수료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7월 5~10일까지 2차에 걸쳐 '1,000포인트 가산점 취득 및 INNOVATOR 인재육성 캠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캠프에 참석해서 수료증을 취득해 두면 좋다.”

취업준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가.

“첫번째, 대학생들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좋다. 각 학년별로 학년에 맞는 취업준비를 해야 된다.

1학년의 경우에는 꿈과 목표를 우선 설정해야 한다. 자신의 꿈과 목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그에 맞춰 본격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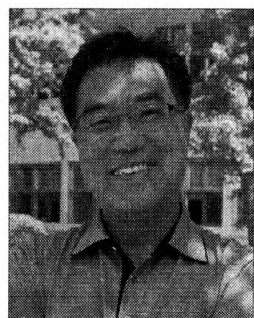
때는 직무적성검사나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학년은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컴퓨터 자격증을 확보해야 한다. 2학년의 경우 전공수업을 들어가지만 3,4학년의 내용부터 깊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한다. 또 토익, 토플 같은 영어점수도 확보해야 한다.

3학년 때는 전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과 기업 인턴, 공모전을 비롯해 비즈니스 회화나 제2,3 외국어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전공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한다.

4학년은 지원사의 산업 및 경쟁관계 분석과 지원사의 갈등요인 분석 후 제안할 아이디어 연구, 채용 동향 파악 및 맥킨지식 3단 프레임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 4학년때 어께가 가벼워야 한다. 2,3학년때 해야 할 것들을 4학년때 모두 해야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두번째, 직장보다 직업을 한번쯤 생각해 봤을 좋겠다. 영원히 자신을 보장해주는 직장은 없다. 단순히 봉급을 받기



위해 회사를 선택한다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다. 직장은 여럿이 함께 일하지만 직업은 어쩌면 홀로서 기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할때 돈을 받으면서, 홀로서기 위한 일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세번째, 주변에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대 나이로 세상의 문을 열기에 쉽지 않다. 학교 취업지원실이나 선배들, 교수님들을 적극 활용하고, 본인을 많이 알려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인적네트워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

강보배 기자

김경순 취업전략본부 / 상담심리학 박사

“방학 맞아 적성 · 심리검사 기회로... 주변의 멘토 도움 필요”

적성 · 심리검사가 왜 중요한가.

“요즘 학생들은 좋은 직업보다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알지 못하고 그저 스펙 쌓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져야 후회하지 않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나 또한 원래는 단순한 행정공무원이었지만 제주대에서 받았던 적성검사로 인해 상담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지금도 공무원으로 일할 때보다 상담가로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때가 더 행복하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하는 적성 · 심리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취업전략본부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능력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의 종류로는 성격유형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표준화 성격검사, 진로탐색검사,

적성검사 등이 있다. 이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전략본부(<http://career.jeju.ac.kr>)에 접속해 커뮤니티에서 취업 · 진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또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격유형검사, 적성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은 매주 금요일마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된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는 것이 좋을가.

“많은 학생들이 방학이면 늦잠을 자거나 종일 놀기만 하는 등 게을러지는 것 같다.

방학이라고 늘어지기 보다는 방학 중에 여행이나 봉사활동 계획을 짜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리더 역할을 하면 더욱더 큰 경험이 될 것이다.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국내 봉사활동만 하지 말고 해외 봉사활동을 신청해서 영어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일석이조를 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학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책은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이다. 직접적인 여행은 못가더라도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다. 학기 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 바쁜 생활을 하더라도 5~10분 정도에 자투리 시간이 조금씩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에도 짧은 알기꺼리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좋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한다면 성공에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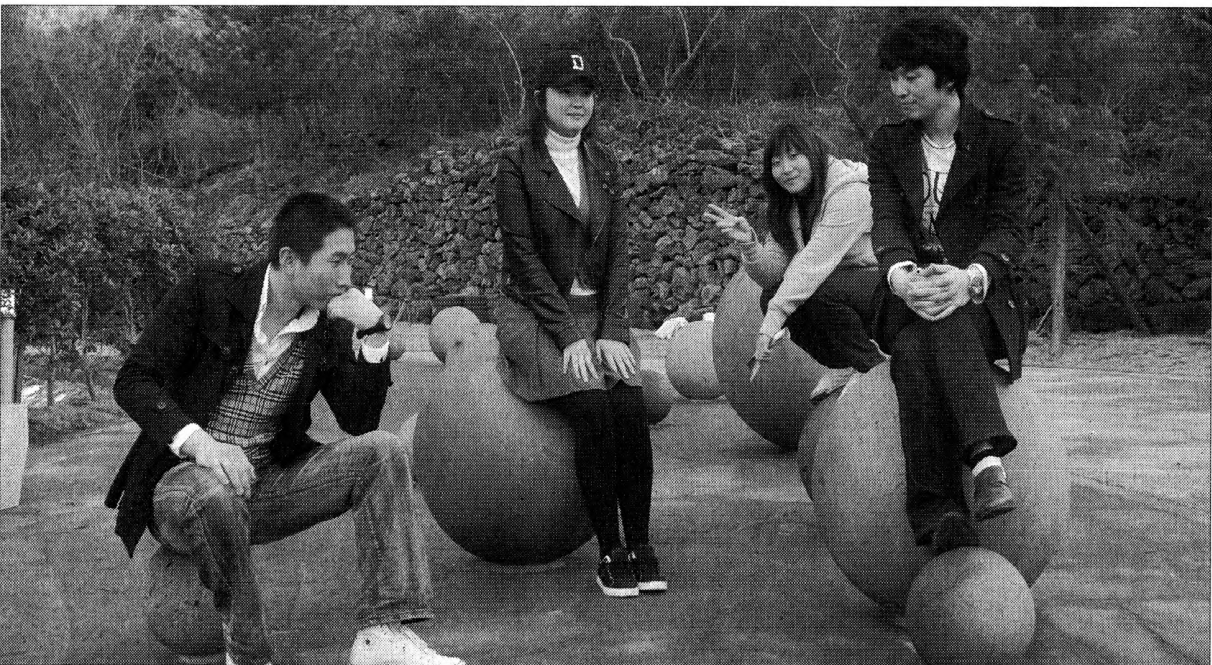


발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다.

자신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멘토를 만들어라. 학생들에게 멘토를 적어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나 위인들을 많이 쓴다. 하지만 진정한 멘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학교에 있는 교수, 직원, 과선배들이 우리가 적어야 할 멘토인 것이다. 그래야만 가까워서 자신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보배 기자

포토 에세이



동수, 오리, 개썸, 여자! 유리의 성에 가다!

처음 가 본 유리의 성에서 디카의 타이머 기능으로 사진을 찍었다. 동수는 생각하는 사람, 오리언니는 다소곳하게 만산바라기, 나는 건달브이, 여자는 그윽한 남자버전. 훗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이 때의 순수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선이(생명공학부 4)

금주의 행사와 포토에세이를 모집합니다.

종합면에서는 독자들의 다양한 사진수기인 '포토에세이', 각 학과의 행사를 알리는 '금주의 행사' 컷을 심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행사 및 사진은 press@jeju.ac.kr로 매주 금요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포토에세이에 사진이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학과별 행사

△국어국문학과
행사명: 학술조사와 종강파티
일정: 6월 23일~25일
장소: 성산 신포리

△정치외교학과
행사명: 동문선후배 만남의 날
일정: 6월 21일
장소: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언론홍보학과
행사명: 영상제 판권 정기총회
일정: 6월 9일 오후 4시
장소: 법정대 2123 강의실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행사명: 과학축전
일정: 6월 11일~13일
장소: 한라체육관

△전자공학과
행사명: 동문회야유회
일정: 6월 13일
장소: 한라수목원

△예술학부
행사명: 한국화 · 서양화 · 조소전
공 선후배 만남의 날

일정: 6월 11일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
장소: 미술관 110호 강의실

▲총여학생회

△담요 및 슬리퍼 대여
일시: 6월 7일~21일(주말제외)
보증금: 슬리퍼 3천원, 담요 천원(반납시 돌려줌)

△간식제공
장소: 총여학생회 사무실
일시: 6월 15일~14일 오후 9시(선착순으로 제공)

▲아라뮤즈홀 공연

△꽃별밴드-퓨전국악과 함께 즐거운 시간
주관: 문화광장
일정: 6월 9일 오후 2시
입장료: 무료

△전제덕의 하모니카 스토리
주관: 제주대학교
일정: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입장료: 무료

△제주피아노학회 콩쿠르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피아노학회
일정: 6월 12일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매체 6월 포토샷
일정: 6월 16일~17일 오후 1시~4시
장소: 생명대 2호관 산업응용경제학과 PC실습실

▲해외봉사단 모집

△PAS청년해외봉사단 선발
모집일정: 6월 14일~25일
파견국가: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견기간: 2010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중 3주~4주
신청: 취업전략본부(heejeung@jeju.ac.kr)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모집일정: 6월 20일 까지
파견국가: 몽골
파견기간: 7월 31일~8월 11일
신청: <http://dongbuka.kyob.co.kr>

무문유설

소통유감(疏通有感)-나는 소통이 싫더라

소통(疏通)은 '막힌 것 없이 트여서 오가는 데 거침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말사전에서는 '이 말을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풀이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소통이라고 번역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 왜냐하면 콤(cum: with)과 모니스(monis: bound), 또는 콤(cum)과 오이노스(oínos: one)라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막힌 것이 없이 잘 통하는 것'과 '한데 묶는 것'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하나의 말을 맥락 속에서 읽어 내지 못하는 것은 오류(誤謬)다. 그러므로 소통(疏通)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의 차이에 집착하는 것도 병(病)이라면 병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 소통도 커뮤니케이션도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도 그 말이 뼈뺏하게 들린다는 건, 그 사람이 뼈뺏어진 탓이다. 하지만 요즘 소통의 쓰임새를 보



김치완 철학과 교수

면 '그 몸술 사회가 왜 소통을 권하는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한다.

정작 굳건한 벽(壁)을 쌓고서 말로만 외치는 소통, 결국 자기에게 동의하기를 요구하는 일방 통행식의 커뮤니케이션만 있기 때문이다.

'말마디나 한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소통'부터 말하는 사회다. 대중의 표가 필요한 선거철의 정치인에서부터 그런 정치인의 위선에 넋덜머리를 내는 지식인까지 입만 열면 소통이다. 하는 말들도

고상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라고 해도 될 것을, '소통이 부재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통 부재'의 책임은 언제나 '너에게 있다'고 진단하고, '그러니까 너부터 마음을 열고 나와 한데 묶이자'고 요구한다. 결국은 불화(不和)한 채로 말이다. 이게 시쳇말로 '파소적(fasciotic) 동이불화(同而不和)'다.

청나라 사람 장호(張湖)는 '꽃에는 나비가 없을 수 없고, 산에는 샘이 없어서는 안 된다. 둘에는 이끼가 없을 수 없고, 물에는 물풀이 없어서는 안 된다. 교목(喬木)에는 덩굴이 없을 수 없고, 사람에게에는 '벽(癖)'이 없어서는 안 된다. (花不可以無蝶 山不可以無泉 石不可以無苔 水不可以無藻 喬木不可以無藤蘿 人不可以無癖)'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박제가(林齊家)는 '사람이 벽이 없으면 버린 사람일 뿐이다.

대저 벽(癖)이란 글자는 병이란 글자에서 나온 것이니, 지나친 데서 생긴 병이다. 그러나 홀로 걸

예를 익히는 것은 이따금 벽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人無癖焉 棄人也已 夫癖之爲字 從疾從彼 僻病之偏也 雖然具獨往之神 習專門之藝者 往往惟癖者能之)'라고 말한 바 있다.

벽(癖)에 대한 이야기는 '미치지 않으면(不狂) 미칠 수 없다(不及)'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보면 벽(癖)은 자신의 정체성 찾기이고, 고집과 투쟁이며, 인문학적 생명력의 원천이다. 통섭(統攝, Consilience)도 좋고, 소통도 좋다.

하지만 벽(癖)을 전제로 하지 않은 통섭과 소통은 천박한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 소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나와 남의 벽(癖)을 인정하고, 그래서 떼뺏어야 한다. 그런 다음, 남을 속이지 않는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속이지 않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개방성을 의사소통의 제일원칙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성 없는 소통의 요구, 원칙 없는 소통의 강제. 그래서 나는 소통이 싫더라.

기고

쾌적한 학문공동체를 위한 고언(苦言)

인문대 2호관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이 완공을 눈앞에 뚝에 따라 인문대 2호관 남쪽(학생생활관 4호관과 동물병원 북쪽) 공간 정리 작업이 이뤄지면서 인문대 구성원들은 그곳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4월의 인문대 학장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그 공간의 활용방안이었다는 사실은 인문대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도를 입증한다.

학장선거에서 3인의 후보자는 이구동성으로 그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인문대의 이기주의로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그곳은 인문대만이 아니라 학생생활관, 국제교류회관, 평생교육원, 중앙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인접한 공간이다. 후문으로 진입하면 곧바로 마주치는 곳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민다면 대학인들은 물론이요 손님들에게도 사색공간이자 쉼터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대학교의 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의대 건물이 들어선다는 소리가 들린다. 헛소문을기를 바란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지 않기로 이미 오래 전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



김동윤 국어국문학과 교수

슨 약속이냐고?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나는 18년 전의 <제주대신문>을 뒤지면서 이 글을 쓴다. 다음은 1992년 8월 25일자 3면에 실린 '동물병원 문제 일단락'이란 제하의 기사 전문이다.

'92학년도 1학기 동안 우리학교를 떠돌아다녔던 동물병원 설치 문제를 며칠째 고민해 왔던 동물병원 설치 문제를 지난 8월 17일 인문대 교수들의 요구안을 학우회의에 제출, 총장이 이를 수렴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이날 학우회의에서 인문대 교수측이 제안한 요구사항은 △현 동물병원 설계도에 있는 대동물 처치실을 강의실로 시설 변경하고 대동물 처치실은 목장지역으로 이설할 것. △동물병원 주변은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완벽한 나무심기를 할 것. △신축되는 동물병원 이외의 수의학과 관련시설 증축 불가 등 3개항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8월 13일 전·현직 인문대학장과 총장과의 면담 및 8월 14일 인문대 학장실에서 열린 인문대 학과장회의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한 끝에 합의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인용된 기사의 서두에 언급되었듯이, 1992학년도 1학기에는 한 학기 내내 동물병원 신축 문제로 우리대학교가 큰 갈등을 겪었다. 당시 <제주대신문> 지면에 실린 '동물병원 문제 갈등 증폭'(3월 18일자), '동물병원 이설 촉구-인문대 비상 학생총회서', '인간이 가축만 못하다-가축병원 이설을 주장하며', '총장 귀하-제2차 회신요구서', '동물병원 신축과 관련-수의학과와 입장'(이상 3월 24일자), '인간이 가축만 못하다'니'란 제하의 사실을 읽고(3월 31일자), '○○○교수의 글에 대한 분사 입장', '누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가'(이상 4월 8일자), '동물병원 위치 무었이 문제인가'(5월 6일자) 등의 기고문과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동

물병원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된 갈등이 위에 인용된 내용대로 간신히 봉합된 것이었다.

당시 인문대와 학교당국이 합의한 내용은 세 가지였음을 기사에서 알 수 있다. 만약에 인문대 남쪽 공간에 수의대 건물을 신축하면 그 중 두 가지 합의를 한꺼번에 완벽히 깨버리게 된다. '동물병원 주변은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완벽한 나무심기를 할 것'이라는 사항을 지키지 않음은 물론이요, "신축되는 동물병원 이외의 수의학과 관련시설 증축 불가"라는 사항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18년 세월이 흘렀다고 공적인 약속을 평가할 수는 없는 법이다. 어렵게 봉합되었던 갈등을 학교당국이 앞장서서 불거지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주변 여건을 보아도 그곳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다시 한번 강조 하건대 이전 인문대 구성원들의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상생의 길로 나아가면서 쾌적한 학문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사설

Present(現在)=Present(膳物)!

태초에는 '현재(現在)'라는 시제(時制)만 있었다.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 '과거(過去)'가 생겼고, 또 그 후에 '미래(未來)'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현재 속에는 '나는 어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다'라는 과거와 '나는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날 것이다'라는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와 '미래'는 가상에 불과한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인 것이다.

영어에는 '현재완료(現在完了)'라는 특별한(?) 시제가 있다. 한국어에는 없는 이 시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적 과거(現在的過去)', 즉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과거'를 말한다. 역사학자 Croce는 "모든 역사는 현재사(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라고 하였다. 사실의 경중(輕重)을 떠나서 현재의 시점까지도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거의 사실만이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을 위시한 유교권의 동양인들에게는 역사가 '과거'이지만, 그리스·로마문명의 서양인들에게는 역사가 '현재완료'인 것이다.

한국인들 사이의 대화에서는 종종 "그 친구네도 한 때는 부자였다", "그 친구도 초등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 했었다", "그 친구 아버님도 교장선생님까지 하셨지"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며,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수긍하면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만약 그 대화에 어떤 서양인이 참여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아니, 받아들이기는커녕 왜 갑자기 지금 이 대화상에서 저런 사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인가 매우 의아해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과거로 생각하는 사람과 역사를 현재완료로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이다. 과거적 사고방식과 현재완료적 사고방식의 차이인 것이다. 그리고 알고 보면, 요즘 유행하는 '실용주의(實用主義)'라고 하는 것도

다름 아닌 이 현재완료적 사고방식의 소산인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마음만 그렇게 앞서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라. 혹시 지난 1학기 동안에도 그러면서 지냈는지 모른다. 학교에 와서 오전 수업을 받으면서 "언제면 점심시간이 될까?"하는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어떻게 또 오후수업을 받지?"하는 생각을 하고, 오후수업을 받으면서 "언제면 오후 수업이 끝나 친구들과 한잔하냐?"하는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한잔하면서 "언제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잘까?"하는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어휴, 어떻게 또 내일 수업을 받지?"하고 말이다. 이런 식으로 지낸다면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남는 게 없다. 항상 마음이 미래에만 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현재는 한 시도 없었으니까.

혹시 또 지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부터 "이번 여름방학이 되면 마음잡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리라"고 결심하진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 이미 방학이 시작된 어제도 오늘도 "내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하는 결심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일내일 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 과거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며, 미래에만 마음이 가 있어도 안 된다. Present is present! 신(神)이 우리에게 준 '선물(膳物)'은 오직 '현재(現在)'일 뿐이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 방학에는 마음먹은 일들을 오늘부터 해보자. 오늘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현재를 맞이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그 현재를 마음껏(?) 즐겨보도록 하자. 그 래야 남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미디어 세상읽기

'지방채무' 감시견 역할 강화하길

지난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정책 과제들을 내용하면서 지역 언론도 연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그 가운데서도 '지방채무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도재정이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가 돋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채무가 지방채 이자 2437억원을 포함해 1조73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채무가 올해 제주자치도의 총 예산규모 2조7498억원의 40% 가까이 돼간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기대수익이 없는 주택구입 사업 추진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강행으로 재정이 부실해진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민간투자사업(BTL)을 벌이다 보니, 20년간 갚아야 할 돈만 863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40여개 공공시설의 조직운영, 건물유지 등으로 연간 111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러 전문지식과 경영안목 없이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바람에 도출사업의 적자 규모가 심각한 상태다. 제주개발공사는 547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171억원, 제주관광공사는 94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한다. 세수를 늘이겠다며 벌인 사업이 지자체 재정만 축낸 꼴이 됐다. 지방재정 규모에 걸맞지 않는 토건(土建) 사업 남발과 주민이기주의에 편승한 각종 사업추진 등 그 난맥상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 지방재정의 총체적 부실은 어디까지나 인수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의해 낱낱이 세상에 알려졌다. 제주도나 도의회가 여러 단계의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 등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지방재정의 문제점이 언론에 의해서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이하게까지 여겨진다.

세상스런지만 언론의 존재이유는 감시견(watchdog)으로서의 역할에 있다. 이 감시견이 제 구실을 못할 때 그 역할을 시민사회단체가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주민감사청구제도로 인해 그 기능을 다하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감시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고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채 남발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실화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언론이 지금부터 전력을 기울여 수행해야 할 것도 바로 그런 감시견 역할이라고 본다. 언론은 투자효과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는지,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는지, 부족한 경상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 미

시적 접근과 이에 따른 철저한 감시를 벌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명정대한 예산안이 마련되고, 불분부담한 예산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뉴스 보도를 통해 엄중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

짓지 않는 감시견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혈세에 대한 투명한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감시견들이 제때에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후속보도가 이뤄졌으면 한다.

정용복 대기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u.ac.kr
홈페이지 http://www.news.jejuu.ac.kr

박종건 편집장

돌하르방

실체(實體)를 넘어 실재(實在)를 보아야

대학은 하나의 사회라 한다. 모든 조직기구들이 작은 사회를 형성하겠지만 대학처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내 조직도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공·무·정을 구분지 않고 내리는 판단이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트랜디한 대학, 나쁘게 말하면 주관없는 대학이라 해야 할까.

이는 현재의 사회 속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도 있다. 혹은 국가가 대학에 이념과 사회의 지향을 따라하도록 강요하는 것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대학의 본질적 역할과 그 속에서의 개개인의 역할을 혼돈스럽게 만든다. 대학이 언제부터 수의사업에 나섰는

지, 평가 중심의 운영을 하였던지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학을 위한 구성원이 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철학적 의미로 보았을 때, 이는 실체만을 좇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표상적 의미의 실체와 어떤 것 속에 숨겨진 내면적 가치를 지난 뜻하는 실재는 우리가 진실하게 지향해야 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말이다.

사실 현재의 모든 사회가 실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자본과 권력으로 치장한 실체들의 가치만이 최우선인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자연히 그것을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실체와 실재라는 글자의 작은 차이처럼 그것의 본의미를 구분해 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아 이러니컬하게도 실재를 지향하는 방법은 실체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대학에 있었다. 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성들의 외침이 무수한 허구 속에서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대학에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이었다.

대학신문사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에게 그 동안의 시간은 귀중한 경험들로 대신 할 수 있자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치로 실재를 생각할 수 있게 된 점이 다. 본질적 가치 없는 맹목적 지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

의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하게 된 것이다.

대학신문도 이제 실재를 향해야 한다. 현실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실체들에 이리저리 휘둘러서는 안 된다. 인간은 실체와 실재를 구분하려는 유일한 존재자라 한다. 그 말은 만물 중 가장 이성적이고 명확한 사고로 판단할 줄 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인간이 실재를 알면서도 실체만을 좇는 비정직한 행동은 많아야 한다. 그것은 그 자신에게 슬픈 것이다. 알면서도, 현실 때문이다라는 말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든, 권력이든, 꿈이든.

세계자연유산 등재 3년 / 제주의 새로운 대표 상징

페루 마추픽추 훼손 주시해야... 보전 없인 관광도 없어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지 3년째를 맞았다. 사진은 성산일출봉 일출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지난달 27일자 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지 3년째를 맞았다.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이다. 이제 제주 자연은 제주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지켜야 할 보물이 됐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면서 훼손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을 둘러봤다.

〈편집자주〉

차를 타고 한참이나 달려서 찾아간 성산일출봉은 봉우리 위에 안개를 머금고 있었다. 두터운 안개 때문에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쪽빛 바다가 펼쳐지는 장관을 못 보게 됐다. 발걸음이 망설여졌지만 먼 걸음을 허무하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정상에 오르니 푸른 바다 대신 안개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사람들은 이것을 ‘냉장고 바람’이라고 표현했다.

정상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자연유산 해설사가 있었다. 해설사는 보통 마을 주민들이 맡거나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

에서 교육을 받고 파견된다. 성산일출봉 외에 거문오름, 만장굴 등에도 해설사가 있다. 정상에서 만난 한천복(59, 성산리) 해설사는 성산일출봉의 탄생 배경부터 세계자연유산지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줬다. 마을 주민이 직접 해설을 하는 만큼 애정도 남달라 보였다.

“성산일출봉을 보면 제주가 화산활동으로 진동하던 당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빗물과 파도로 벽면이 깎여서 속살이 훤히 드러나거든요. 돌레를 바라보면 성산일출봉의 형성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성산일출봉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수학여행 등으로 찾아온 단체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관리인으로 일하는 강권익(47, 은평리) 씨는 성산일출봉을 오르며 매번 쓰레기를 주우면서 올라온다. 강씨는 성산일출봉 등재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쓰

레기를 버려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식수대도 마련돼 있었지만 못물을 벗어 등목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통에 결국 식수대를 다 없앴어요.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고 아무데나 궂초를 버리는 분도 많죠.”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더 높은 곳에서 경관을 보기 위해 바위 위에 자주 올라가서 훼손이 심각하다. 원래 하나의 바위였던 것이 두 개로 쪼개져서 사이에 길이 생길 정도였다.

이러한 문제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만장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4일 찾아간 만장굴은 물밀듯이 쏟아지는 손님을 때문에 조금은 지친 모습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조호연(43, 성읍리) 해설사는 30만년의 세월을 견뎌온 만장굴이 미래에도 온전히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굴 벽면에 균열이 생겼지만 제주에 지질학을 연구하는 학과가 없어서 멀리 전북대에서 균열측정기를 빌려옵니다. 제주의 가치 있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박쥐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소음 때문에 상당수가 보금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박쥐는 현재 3만마리 정도만 남아있다.

“관광객의 옷 등에 붙어온 식물의 씨앗이 빛을 받아 뿌리를 내리면 동굴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 지정 후 조명을 대부분 없앴어요. 앞으로 보존을 위해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지위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 예로 잉카문명의 상징인 남미의 마추픽추는 지난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하루 2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결국 마추픽추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3년 마추픽추를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지정했다. 페루정부의 집중적인 보호로 마추픽추는 지난 2007년에 위험유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고용희 기자

부속시설 탐방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조난·부상 야생동물 구조 앞장 오는 8월 구조센터 건물 완공

‘로드킬(Road kill)’은 동물이 도로로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숨지는 것을 말한다. 한라산에서 먹이를 찾아 도로변으로 내려온 노루들도 로드킬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제주에는 노루 등 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는 시설이 없었다. 그러나 오는 8월 제주대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윤영민 수의학과 교수, 이하 센터)가 완공된다. 센터는 현재 임시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야생동물 57마리가 센터에서 치료됐다. 노루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소쩍새 등이 구조됐다.



지난달 29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새끼노루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다치거나 탈진한 야생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센터에 도착자가 24시간 대기하며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차량으로 야생동물을 데려온다. 실내에 들어서자 새끼노루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새끼노루는 다치더라도 부모와 함께 자연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드킬로 어미를 잃는 등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센터로 데려온다. 천장 가까이 높은 선반에는 다리를 다친 천연기념물 큰소쩍새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건물 밖에는 치료를 마친 솔부엉이가 야생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쉬었던 날개짓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있었다.

윤영민 센터장은 “야생동물들이 자연 속에서 자기들만의 생태를 꾸미며 잘 살고 있다가 사람이 자연에 발을 들이면서 여러 수모를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야생동물들이 사람이 놓은 덫에 걸리거나 심지어 로드킬로 목숨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며 “이제 이런 동물들을 사람 손으로 직접 거둬서 치료하고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의 말처럼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을 만들기 위해 센터는 다방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태연구다. 생태연구는 동물의 개체수를 파

악하고 계절별 습성, 번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이 개발되더라도 동물의 습성, 번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외에 질병연구도 진행된다. 야생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야생동물로 유래되는 질병을 조사하고 예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멸종위기 동물들의 유전자원을 보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건물이 완공되면 어린이를 위한 전시실도 마련될 예정이다. 어린이들에게 사람 때문에 다친 동물들을 보여주고 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점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센터는 현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윤 센터장은 특히 센터 내에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직 운영 초기인 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수의사를 보충하고 센터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 것 입니다.”

센터는 앞으로 야생조류연구회 등 국내 단체와 밀접하게 교류하고 국내외 학회에서 치료사례를 참고하며 전문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한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자연을 만들기 위한 센터의 움직임이 기대된다.

고용희 기자

한라산 소주
www.hallasan.co.kr



여러분이 마시는 한라산소주 1병이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 한라산소주는 100% 향토자본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며 청정제주를 지키고 미래의 꿈과 행복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사회환원 30억

한라산 소주 사회환원 현황

내역	금액(원)
장학금 및 대학교발전기금	9억1천1백5십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불우이웃돕기	12억8천1백5십만원
대한적십자	2천9백8십만원
심이시물 후원금	3천3백6십만원
제주도 체육육성기금	1억3백9십5만원
지역사회 후원금	6억2백6십만원
수재의연금	4천8십만원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며 운전이나 작업 등 사고 발생을 유발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